

로컬뉴스

# 군산 일부 맛집 민원 잇따라

## 익산시 공무원 친절 교육 실시

익산시가 친절과 소통 행정을 펼치기 위해 25일 송리문화예술회관에서 공무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 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전 직원 특강으로 이루어졌다.

익산시는 이번 친절교육이 공무원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배양해 친절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중심의 공감행정을 구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 익산서 중앙지구대 치안간담회

익산경찰서(서장 김성중) 중앙지구대(대장 김용대)에서는, 민간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대국민 차안보존도 향상 및 여성 상대 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 23일 오전 9시 30분경 생활안전협의회 및 중앙지구대 경찰관 등 23명과 차안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차안간담회는 긴밀한 민·경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최상의 차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된 소통의 장으로 생활안전협의회는 그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내 각종 행사참여 및 봉사활동 등으로 익산의 차안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왔다.

이날 차안간담회를 통해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여성 상대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깊어짐에 따라 범죄예방에 대한 분석 및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가시적 순찰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도·지역·시설에 대한 현장진단을 병행하기로 약속했다.

익산=장양원기자

## 군산시 민·관 합동 불법광고물 정비

군산시는 오는 28일 도시경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퇴치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군산시 전역에서 대대적인 불법광고물 합동 정비에 나선다.

이번 불법광고물 정비는 새롭게 출범한 '불법광고물 시민감시단'과 (사)전라북도육외광고협회 군산시지부, 건설교통국 및 27개 읍면동 직원이 함께 합동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정비 시 적발된 인도 위 불법 입간판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제도 후, 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 할 방침이다.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로 불법광고물 근절시키고자 '불법광고물 시민감시단' 발족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감시단을 활용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 및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군산=문정근기자

## 위생불량·서비스 불친절·원산지 가격표시 혼란·주차불편 등

군산시가 근대관광문화 도시로 관광객들에게 각광을 받는 반면 지역 맛집으로 불리는 일부 음식점들이 위생불량 등의 민원들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도시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있다.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음식점 이용 관련 민원 965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 결과 군산지역은 총 4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유형별로는 위생불량 1건, 서비스 불친절 등 1건, 원산지·가격 표시 혼란 1건, 주차불편 1건 등이다.

실제 지역 맛집으로 소문난 A음식

점은 결제 과정에서 메뉴판에 적힌 금액과 다르게 음식 값이 올랐으며 추가 금액 결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맛집 B는 육안으로도 오래돼 보이는 요리 기구를 사용하고 있고, 부엌 냉장고 인근에는 별레들이 거더대일 정도로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C음식점은 손님에게 반찬을 던지듯 주며 불친절로 일관해 관광객이 불쾌함을 느꼈다.

최근 음식점화가 또 다른 관광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근대관광문화도시의 이미지에 걸맞는 서비스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이다.

한 시민은 "군산의 경우 유명세를

탄 맛집들을 순방하는 이른바 식도락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음식점 고객서비스를 점검하고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 여행시 불편을 줄이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음식점 종사자 스스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자체도 지도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 지역 음식점 위생적취급기준 위반 적발사례는 10건, 올 들어서는 3건이 적발된 바 있다.

군산=문정근기자

# 군산시, 내항 해양공원 조성공사 착공

## 주차장 활용부지에 수목식재·포토벽 조성 등 관광객·시민들 쉼터공간 제공

군산시가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내항 해양공원 조성공사를 15일 착공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항만부지내 공공부지를 활용해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관광객 밀집지역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통해 장미동 1-4번지에 2300㎡ 규모의 공원조성을 위한 부지 무상사용 협조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 없이 확보해 절감된 예산을 선도지역내에 재투자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던 부지에 수목식재, 포토벽 조성, 마구조물, 광장, 경관조명을 설치해 주차 공간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쉼터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포토벽 조성을 위해 내달 19일



까지 군산여행 추억 사진 공모로 포토벽을 설치함으로써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쉼터공간을 확보해 시민과 관광객에

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항 해양공원이 근대역사박물관과 진포해양테마공원과 함께 관광 명소를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문정근기자

## 익산시, 폭염대비 '시원한 쿨 서비스' 추진

익산시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도로 복사열을 줄이고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쿨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도심의 열섬 저감을 위해 한낮에 뜨거워진 시내 주요 도로 아스팔트에 살수차를 이용해 물을 뿌리는 살수작업과 시민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인 시외버스 터미널 익산역 주변 북부시장, 영등동 일대에 열음을 배치했다.

특히 휴일인 24일에는 북부시장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열음을 추가

로 배치하여 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경로당 등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곳에는 폭염 예방 홍보를 담은 부채 5,000개를 제공하고,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쿨 스킨프 3,500개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안부전화와 방문건강관리를 강화하고 농촌지역에는 마을 앱을 통해 폭염 발생에 따른 국민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있다. 건설현장과 농촌지역의 논밭, 비닐하우스 등 폭염 취약시설장에 대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름 무더위 속 뜨겁게 달아오른 도로에 물 뿌리기를 통해 익산 도심의 열섬현상을 줄이고 열을 배치와 쿨 스킨프 제공으로 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시원함을 선사하겠다"며 "폭염예방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익산=장양원기자



## 원광대병원 '환자안전 Day' 행사 성료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이 제8회 환자 안전데이(Day) 도전을 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자 안전데이 도전! 골든벨 행사는 최근 외래1관 4층 대강당에서 최두영 병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일동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본 행사는 환자중심 병원 경영을 지향해 온 원광대병원이 환자 안전 및 직원 안전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대처에 대한 경각심을 심는 목적으로 열렸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모티브를 얻어 골든벨을 울리는 퀴즈대회 형식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각 부처에서 55명의 도전자가 참가했다. 행사로 인해 환자 안전의식 강화에 대한 교육적 효과도 높

는 이중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자안전의 날 행사인 도전! 골든벨 도전자들이 부처 동료 직원들의 열정적인 응원을 안고 치열하게 난재들을 풀어나간 끝에 1등 장원은 62명동 강한결 선생이 차지했다. 2등 준장원은 심장집중치료실 김연지 선생이, 3등 아차상은 인공신장실 김다정 선생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두영 병원장은 "환자 안전과 감염 관리에 대한 사안은 환자안전법이 시행될 만큼 국가적인 관심사이기도 하다" "직원은 일상에서 실천하고 병원은 이를 시스템화 해 의료의 질도 높이고 환자와 직원 안전 문화가 정착된 병원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원광=장양원기자

## 군산시, 저소득층 무이자 임대보증금 지원 추진

군산시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거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저소득계층 무이자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 시는 올해 2억 7400만원의 예산을 확보, 7월 현재 39세대에 1억 6800만원을 지원해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저소득계층 무이자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신청 자격은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로, 해망동 희망루아파트와 11에서 제공하는

장기임대주택과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로 확정되면 계약 후 군산시청 주택행정과에 임대보증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중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주택행정과(☎454-421~3)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군산=문정근기자

## 주말 군산 앞바다서 사건·사고 잇따라

군산시 해망동 선착장 앞 해상에서 60대 여성의 사체가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군산해경사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6시 25분경 군산시 해망동 선착장 앞 해상에서 64살 A씨가 숨진채 발견됐다. 해경 조사결과 숨진 A씨는 경기 고양경찰서에 실종신고가 된 상태로 해경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박 고장 및 응급환자 발생도 이어졌다.

23일 오후 4시 3분경 군산시 옥도면 왕등도 서쪽 약 50km 해상에서 추진기(스쿠르)가 어망에 걸려 표류중인 27톤급 채낚기 어선을 출몰한 경비함을 이용해 예인했다.

군산=문정근기자

**Seeseri Clean UP**

문제는 싱크대다

Why? "씨서라"를 사용해야 하는가

- 싱크대 배수통 역류 방지 및 악취 차단
- 스물~스물 올라오는 음식물의 불쾌한 냄새
- 오래 사용한 싱크대 배수구를 신속하고 싶다면
- 믿을수 있는 국산, 특허 제품
- 님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설치, 사용 가능

**(주) 코포스**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각 지역 총판 및 딜러모집 (여성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광고 게재기간동안 공동구매시 설치비 30%할인 행사합니다.

코포스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새로운 형태의 창업"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 [www.seeseri.com](http://www.seeseri.com) / [www.씨서리.com](http://www.씨서리.com)을 방문하시면 상품정보, 각종동영상, 자세한 자료, 사업의 비전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 이병기 010-5628-1256. see8709@naver.com

**"씨서라" 실제 설치!**

청소액 [박스]

씨서라를 사용하면 싱크대 배수구 내부에 쌓여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배수통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씨서라를 사용하면 싱크대 배수구 내부에 쌓여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배수통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씨서라를 사용하면 싱크대 배수구 내부에 쌓여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배수통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